



공동체 소식

**위령 성월**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집회 7,33)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자선활동과 더불어 기도와 속죄로  
묵은 인간' 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인간' 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기도지향

- 안병환(발렌티노), 안현숙(크리스티나) 가정
-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가정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11월10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캔사스 한인회 주최 경로잔치

- 일시 : 11월 4일(일) 오후 4시 ~ 7시
- 장소 : 필리핀 문화회관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미주한인체육대회 기금마련 '일일식당'을 운영합니다. 티켓은 한 장에 15불이며, 행사분과장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추수감사절 관계로 11/17(토)로 앞당깁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1	512	170, 161	44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안광민(야 고 보)	차호섭(요 셉)
	안광희(크리스토퍼)	차서은(세라피나)
다음주일	문석찬(요 셉)	홍순익(마르티노)
	문호진(안토니오)	김준영(요 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김수연(율리안나)	김태중(예레미아)
	김명은(안 젤 라)	김시연(엘리사벳)
다음주일	최은미(아 네 스)	류기범(요 셉)
	김주연(세실리아)	류다운(임마누엘)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김경희(스콜라스티카) 한춘희(라파엘라), 이영민(엘리사벳)
다음주일	손정화(이사벨) 윤유나(글라라), 유미영(마리아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다음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10월 28일>
- 미사참례 : 74명
- 주일헌금 : \$580
- 교 무 금 : \$335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31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모르는 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은혜를 청하면서 정성 모아 미사를 봉헌합니다.

### 성화해설

#### 청양 다락골

대전교구,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소재.

청양 다락골은 ‘팍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와 그의 부친인 최경환 성인이 탄생한 유서 깊은 교우촌이자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이 줄지어 자리한 곳이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산등성이에 무명 순교자들의 묘가 여러 줄로 서 있는데, 1866년 병인박해 당시 공주와 홍주에서 순교한 교우들의 시신을 엄중한 감시를 뚫고 밤을 틈타 빼내어 이곳에 안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전교구는 교구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2008년 11월 기념성당을 건립하여 봉헌식을 거행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 서 : 신명 6,2-6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 느 님 제 힘 이 시 어 그 지 없 이 - 사 랑 하 나 이 다 -

- 그지없이 사랑하나이다. 하느님 저의 힘이시여 하느님은 저의 반석 저의 성채 저의 구원자시오니.◎
- 저의 주님 이 몸 숨겨 주시는 바위시여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산성이시여. 찬미하올 주님을 저는 부르면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되오리다. ◎
- 주님께 만세 만세 내 바위를 찬양하여라. 날 구하신 하느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여라. ◎
- 당신께서는 임금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기쁨 부음 받은 자에게 자비를 내리셨나이다. ◎

제 2 독 서 : 히브 7,23-28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 마르 12,28ㄱ-34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 세 마

## “묘비명(墓碑銘)”



11월 위령성월은 죽음에 대해, 하느님에 대해 많이 묵상하는 달입니다. 11월 1일 어제 모든 성인들(all saints) 대축일에 이어 11월 2일 오늘은 모든 연옥영혼(all souls) 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나눕니다.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모르는 게 죽음입니다. 가장 분명하면서 확실한,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까맣게 잊고 지내는 죽음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우리 삶이요 늘 곁에 있는 죽음입니다. 과연 준비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게 잘 늙어가다 잘 죽는 것입니다. **“영애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삶이 온 햇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지혜4,8-9).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의 삶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의 질임을 깨닫습니다. 하여 사막교부들은 늘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환히 두고 살라.’ 말했고, 우리는 매일 하루를 마감하는 끝기도 때마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바칩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 온갖 환상의 어둠은 말끔히 걷힙니다. 죽음에 대한 답은 하느님뿐입니다. 하느님과 삶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깨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침 성무일도 시편중 마음에 와 닿은 구절입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그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오리까.” “하느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 평생 주님을 찬미하라. 이 생명 다하도록 내 하느님 기리리라.” “하느님이 그의 구원이신 자, 그의 희망, 하느님이신 자는 복되도다.”

위 시편들 바로 하느님이 죽음에 대한 유일한 답임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여 저절로 바치는 찬미요, 찬미와 더불어 깊어지는 주님과와의 관계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생사를 넘어 영원한 삶이요, 바오로의 말씀처럼 이런 이들 위에는 죽음도 균림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장만하여 늦게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고 이들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이 깊은 묵상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이 바로 내 영혼 등잔에 기름을 마련하는 것이요, 비축되는 선행의 기름과 더불어 주님과 깊어지는 돈독한 삶의 관계입니다.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날마다 주어진 책임에 충실하며 깨어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죽음 준비입니다. 매일 제 시간에 깨어 주님을 기다리다 주님을 맞이하는 미사보다 더 좋은 죽음 준비도 없습니다. 주님이 결정적으로 오시는 날은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죽음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죽음을 눈앞에 환히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여 묘비명의 묵상을 권합니다. 천주교 묘지를 방문할 때도 제가 우선 확인하는 것도 묘비명입니다. 예전 피정 지도 때도 각자 묘비명을 써보고 묵상하라 한 적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오늘 화답송 후렴은 예전에 어느 분에 써드린 묘비명입니다. 묘비명은 바로 좌우명이 되고 늘 영혼을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시간, 우리 모두 영혼의 등불 환히 켜두고 깨어 기다리다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매일 깨어 바치는 미사보다 더 좋은 죽음 준비도 없습니다.



● 분도회 이수철 신부

# 마 중 물

## 도미니크 보비

도미니크 보비는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는 왼쪽 눈 하나를 빼 놓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왼쪽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왼쪽 눈을 깜빡거리면서 알파벳을 연결시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왼쪽 눈을 자그마치 20 만 번 이상 깜빡거리려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그는 책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침을 삼키면서 감사해보셨습니까? 장 도미니크 보비는 건강을 상실한 다음에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침을 언제든 마음껏 삼킬 수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 유머 게시판

## “왜 자꾸 주세요?”

승합버스 기사가 시골길을 동네 할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 하던 할머니가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운전사가 “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아몬드를 한주먹 기사에게 주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고맙다고 말하고 아몬드를 먹으며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이야기 하던 할머니가 또 어깨를 치며 한주먹 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계속 가는데 한참 후, 또 아몬드를 주시길래 기사가 물었어요,

기사 : 감사합니다만 왜 자꾸 아몬드를 주세요?

할머니 : 우린 이가 약해서 씹을 수가 없어,

기사 : 그런데 왜 사셨어요?

할머니 : 그래서 초코렛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자넬 주는 거지...

